

장흥 '원종오리단지' 강행

악취·폐수 우려 주민 4개월째 반발

사업자측 착공 서류 제출...마찰 일 듯

장흥 '원종(原種)오리(GPS) 생산 단지'사업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6일자 11면) 사업자 측이 공사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7일 장흥군에 따르면 사업자 측인 한국오리협회와 (유)한국오리협회(대표 이신)는 최근 군에 원종 오리단지 착공 서류를 제출했다.

오리협회는 "오리사육에 따른 악취와 폐수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민원처리 과정에서 환경성 저촉 여부를 비롯한 관계법상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얻은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군에 1차로 종로리 부화장과 사육장에 대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안양면 번영회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악취와 폐수유출 등 환경오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리단지 조성은 있을 수 없다"며 사업추진을 폄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군은 안양면 기산리 일대에 조성되는 '로하스 타운' 공사차질을 우려해 L모 레저회사와 오리사육장간 공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때 오리단지 후보지 이전을 검토했으나 오리사업자 측의 반대로 백지화했다.

한국오리협회와 (유)한국오리협회는 사업비 150여억 원을 들여 장흥군 안양면 담양리 일원 부지 7만7천㎡(2만3천평)에 원종 오리단지 사업을 추

진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전남도·장흥군과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전남도와 장흥군이 기업유치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원종 오리생산단지는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4개월째 답보상태에 있다.

군은 원종 오리단지가 조성되면 1만마리(마리당 10만원)를 부화시켜 전국에 보급하고 원종오리에 대한 연구실험 센터 등을 조성, 전국 유일한 오리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내에서 원종오리를 생산·보급하지 못하고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수입함에 따라 도입비용이 높고 AI 등 전염병 발생 시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ykim@



꽃샘 추위가 불어 닥친 17일 왜가리 200여 마리가 강진군 울천면 오추마을 뒷산 숲에 동지를 틀었다. 면(面) 전체가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지정된 울천면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먹잇감이 풍부, 왜가리 등 조류가 많이 찾아오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자동차·주민세 자치구 이양해야”

광산구, 광역시-區간 지방세목 조정 요구

자치구의 취약한 재정난을 완화하고 자치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구(區)간의 합리적인 지방세목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일부 세목(稅目)은 아예 징수교부금마저 없어 자치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세 등 몇몇 세목은 자치구에 이양해 재정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취득세 등 13개 세목을, 구는 면허세 등 3개 세목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에서 징수 세목의 불균형으로 재정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도는 취득세 등 7개 세목, 시·군은 주민세 등 9개 세목을 각각 징수하고 있어서 자치시·군의 재정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광역시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는 시세(市稅)인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을 자치구로 이양하고, 구세(區稅)인 면허세 등을 시세로 전환시키는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 턱없이 적은 징수교부금의 폐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올 1월에 신설한 소비세는 최소한의 징수교부금마저 없어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에서 징수하는 시세인 주민세는 280억 여원을, 자동차세는 170억여원

을 징수하는데 징수교부금은 고작 3%에 불과하다. 올 1월에 신설된 소비세는 700억여원의 징수가 예상되지만 쥐꼬리만한 징수교부금마저 아예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구는 지방세목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지난 1997년 7월 '광역시·구간 지방세 세부조정'안을 당시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으나, 같은 해 8월 행정자치부는 "광역시의 자치구 조정 재원 감소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면서 수용을 불허했다.

이후 지난 2002년 10월에는 전국 시장·군수·자치구단체장협의회에서 '광역시·자치구간 지방세법 개정' 촉구문을 당시 행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평생 모은 작품·자료 2만여점 고향에 기증

영암 출신 최상열씨



영암출신 출향인사가 고향에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2만여 점의 자료를 기증했다.

영암군 군서면 출신인 최상열(상운화랑 대표·전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오른쪽)는 17일 평생에 걸쳐 수집한 미술품과 고문서 등 2만여 점의 소장품을 기증했다.

기증된 자료는 남종화의 대가인 남종 허견(1908~1987) 등 국내 유명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고문서 등 사료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일제시대 교과서와 동양적식주식회사, 조선총독부 등 일제의 통치자료, 1950~70년대까지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에 관련된 자료도 다수 포함돼 있다.

기증자인 최상열 씨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문화발전을 위해 평생 수집한 '자식 같은' 자료와 작품

을 아낌없이 기증했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최상열씨의 기증의 뜻을 살려 오는 2012년까지 전시관을 설립해 일반에 공개하기로 하고 재원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이성희기자 lsh@

장성에 124 병상 노인 전문병원 문 열었다

첨단 치료시설...기산리서 개원식

장성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공립 노인 전문병원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장성군은 17일 장성을 기산리에서 '장성 공립노인 전문요양병원' 개원식을 가졌다. (사진)

군은 총사업비 55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6천612㎡, 건축면적 1천89㎡, 지하 1층·지상 4층 124 병상 규모의 노인전문 병원을 지난 2008년 12월 착공했다.

병원 1층에는 진료실, 물리·재활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약제실, 행정실이 들어섰고 2~4층에는 병실, 간호사실, 면담실, 식당 등 최신시설을 갖췄다.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이사장 박인수)이 업무협약을 체결, 5년간 수탁·운영하게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노인 전문병원이 준공돼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장기 입원환자들에게 약물·재활치료와 운동요법 등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yongho@

화순군 일자리 1700개 만든다

경비절감...80억 투입

화순군이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일자리창출 전략회의'를 갖고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마련, 발 빠르게 대처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크게 축소되어 취약계층은 물론 전반적인 지역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올해 63억2천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천783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추가로 경상경비와 축제성 경비 절감분 10억5천100만원 등 총 80억6천만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화순읍사무소와 화순읍 광덕리 봉평빌딩에 구직 및 구인 접수창구를 개설한다.

군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군민과 업체의 구직, 구인 희망서를 접수해 프로파일링(전문상담)을 거쳐 적재적소에 인력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지역인력을 채용하는 업체에는 임금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문수기자

강진군 귀농 이어 귀어(歸漁)도 본격 지원 자격·시행지침 확정

강진군이 귀농에 이어 어촌으로 귀어(歸漁)하는 주민에게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강진군 귀어위원회(위원장 고대석 부군수)는 지난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귀어자에 대한 지원자격 및 세부 시행지침'을 확정 의결했다.

군은 이날 맡까지 귀어가 지원신청

을 받아 현장조사와 귀어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에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확정된 귀어자에 대한 지원자격 및 세부 시행지침 의결내용은 지난 2008년 7월 귀어자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정착지원자금과 주택관련 자금지원 등이다.

군은 올해 귀어자 지원사업비로 정착지원금 2가구 5천만원과 주택신축·구입·수리비 2가구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귀어자 지원자격은 지원조례 제정일 이후부터 전 가족이 관내 어촌에 전입해 3개월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이면 된다./중부취재본부=김철희기자 chou@

특허청 등록 제 164803호

천기누설

운명! 사주!

강 애 산 원장 직접문명감정 **일인당 1만원**

궁합 2만원 택일 5만원(결혼,출산,이사)

자손태도로 물려주는 24K 만사형통 황금황제부적 출서!

소원성취부, 삼재예방부, 안전부 (특별판매가 499,000원)

* 각 가정에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도 식구 모두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천기누설 첩서사주카페 **차없는무료!**

예약상담 (062)222-9670 010-2663-9766 YMCA 뒷골목 흥능빌딩 2층 **광주은행 강정자 006-121-747071**

음성 채팅의 지진

광주, 전남 최고!

전통성인 커뮤니티

13년 전통의 최고의 서비스 국내는 물론 해외 교포들까지 직접 연결됩니다

통화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윤임입니다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입니다.

시간당정 확인가격! 전화상담

전국 최저 요금제 이용!!

당일 1588-3533

*여성분은 문의시 무료 전화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나 열린공간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핫트폰

전화정보(ARS) 사업자 모집 | 무제한, 무정도 외곽만 있으면 됩니다 010. 3908. 2888

공장매매

- 위 치 함평 학교 농공단지내
- 대 지 6,345㎡ (1,920평)
- 건 물 1,685㎡ (510평)
- 전 기 계약전력 200kW
- 호이스트 3+3TON, 5TON(협의)

현재 가동중

연락처 : 011-612-2823
이메일 : diid71@hanmail.net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